



혁신 Newspaper



발행처 : 항공교통센터 /우) 400-650 인천 중구 운서 인천공항우체국 사-26호 /전화 032-880-0224 /전송 032-889-2376 /http://acc.moct.go.kr



혁신탐사

거버넌스와 공무원 (1)

- 거버넌스 체제에서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과 공무원 태도의 결정요인 -

■ 새로운 국정운영체제로서의 거버넌스

2 1세기라는 말은 단순한 시대의 의미보다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의미로 다가온다. 전통적 통치체제에서는 시장실패의 극복을 위한 과도한 시장개입을 시도했고 그 결과 정부실패를 초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효율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의 도래와 함께 점차 복잡해져가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가경쟁력의 제약요인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따라서 21세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운영체제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다양한 개념과 이론을 통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기존의 통치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기본 틀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 Eran Vigoda에 따르면 정부 또는 행정과 시민간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좋은 정의는 정부와 시민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개념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부와 시민이 만나는 더욱 진정한 방법은 정부(government)가 '그들(they)'이라기보다는 '우리(we)'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와 시민을 '우리'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다.

■ 공무원이 거버넌스 체제 발전의 원동력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주체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이며, 그 중에서 정부부문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거버넌스의 유형을 국가중심 거버넌스, 시장중심 거버넌스,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로 구분할 때, 세 유형의 중심은 각기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된다. 이러한 유형의 구별기준은 거버넌스 체제가 세 주체 중 어느 한 주체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전통적 행정모형처럼 나머지 두 주체의 존재와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급속한 시장중심 거버넌스나 시민중심 거버넌스로의 전환보다는 국가중심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체제로 나아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국가중심 거버넌스 체제의 전환과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로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할 중심적 행위주체는 국가이며, 국가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이런 차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는 거버넌스 체제로의 신속하고 바람직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존의 체제로부터 거버넌스 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우리 사회의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집단의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 조정을 이룩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 즉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가 거버넌스 체제 발전의 결정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 통권 65호에서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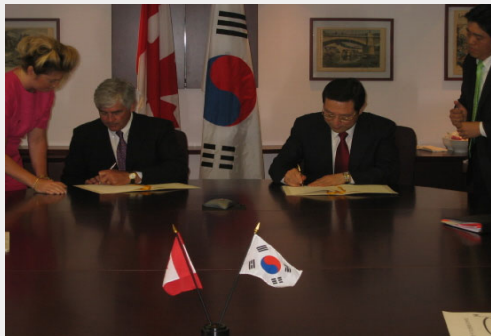
항공소식

건설교통부 장관 캐나다 순방결과

- 한-캐나다간 건설교통분야 새로운 협력 기반 마련 -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6월 11일(월), Lawrence Cannon 캐나다 교통 사회간접자본부 장관과 한-캐나다 건교 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항공 협력 등 교통분야 및 도로, 도시기반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분야 등에 대해

양국간 폭넓은 정보 및 인적 상호 교류를 주요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와 캐나다 교통사회간접자본부간의 건설교통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이용섭 장관

특히, 금년 9월 이곳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인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이사국 선거에 대비, ICAO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는 캐나다측에 이사국으로 연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외교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0만 캐나다 국민뿐만 아니라, 그 동안 좌석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양국간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캐나다간 항공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캐나다 교통 사회간접자본부 장관은 금년 내 항공회담이 어려울 경우, 내년 초에 항공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인하였다.

한편, 캐나다 교통 사회간접자본부 장관은 약 10억불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퍼시픽 게이트웨이 사업¹⁾(Asia Pacific Gateway and Corridor Initiative)을 소개하면서, 양국간 무역, 투자 및 인적 교류와 더불어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우리의 동북아 물류중심 허브화 정책과 연계하여 상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에 ICAO 이사회에 참석하여, ICAO 이사국 선거지지와 국제항공에서의 국가간 협력 필요성 증대를 주제로 연설을 함으로써 약 50개 주재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이어 열린 세계 각국 180여명이 참석한 리셉션에서도 항공안전 및 보안의 중요성과 항공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 제도(Safety Atoz) 시행

건설교통부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항공사의 명단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일명 : Safety AtoZ)²⁾ 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하고 4개의 국적항공사와 국내 취항 43개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5개의 주요 안전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는 국민의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항공사 선택을 위한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개되는 내용은 항공사 및 국가에 대한 5개의 핵심 항공안전 정보로, 항공사의 최근 5년간의 항공기 사망사고 내역, 유럽 연합 블랙리스트 항공사 및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율과 항공사 소속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 및 미국 연방항공청의 안전등급 평가결과이다.

1) 북미대륙과 아시아를 연결하기 위한 관문으로 캐나다 서부 지역(British Columbia, Alberta 등)을 개발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

2) * Safety AtoZ : 안전정보를 A에서 Z까지 모두 공개한다는 의미

이번에 시행되는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안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 기존의 정부 감독 위주의 안전관리방식에 고객 중심적 참여기능을 보장하고, 승객의 안전한 항공사 선택권을 확대, 안전이 미흡한 항공사가 자동 퇴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안전강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반기별(연 2회)로 최신자료로 수정하고, 공개되는 안전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안전도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요구 및 국가간 항공협정 문안에 안전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앞으로 시행효과를 분석·검토하여 항공사별 사고율, 항공사의 보험가입 실태 등 공개내용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항공안전제도로 정착,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항공안전본부 -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문화 증진」 양해각서 체결

- 항공안전문화 증진 파트너쉽 구축 -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본부장 정상호)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강재홍)은 지난 6월 18일 항공안전본부 회의실에서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항공안전본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항공안전도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운영, 항공안전 정보교환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항공안전분야에 있어 정부와 연구기관간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최초 협약으로, 앞으로 세계 8위의 항공운송대국에 걸맞는 안전도 확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항공안전관리, 국제항공안전 선도 방안 등에 대해 공동 노력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항공안전강국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상호 본부장과 강재홍 원장은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항공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항공안전 혁신아카데미 “열린하늘”)을 개설하고, ‘07년 5월 1일부터 운영 중인 국가통합항공안전망(KASS, Korea Aviation Safety System)을 발전·보완시킨 수출용 통합항공안전망 개발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서울지방항공청, 「무안국제공항」 개항준비에 박차!

- 국토 서남권의 항공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남 무안에 건설중인 「무안국제공항」 개항이 차질없이 건설되고, 막바지 개항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서울지방항공청(청장 장종식)은 지난 6월 14일 오후 2시 당청 상황실(503호실)에서 지난 99년 12월 국토 서남권의 항공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착공된 「무안 국제공항」의 11월 개항을 앞두고, 장종식 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무안공항개항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초 공항개항 준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 함께 구성된 무안공항개항준비기구구성 편제에 따라 공항개항 준비총괄 및 시설팀, 지원팀, 운영팀 등 3개팀장과 개항총괄운영반 등 13개 실무추진반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였다.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개항팀장(국장급)을 비롯한 각 반장(과장급)은 이날 점검회의를 통해 성공적인 공항개항을 위해 각 반별로 추진상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없는지, 종합계획에 의한 앞으로 추진은 제대로 되겠는지 등을 소상히 점검하고 논의했다.

또한,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장종식 청장은 “반별 세부일정을 보고, 대부분 마무리 시기가 10월말로 계획되어 자칫 최종점검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시간이 부족해 시기일실이 우려됨을 지적하고, 마무리 시점을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세부일정에 대한 정확한 시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관련기관이나 각 반별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개항준비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 확인·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으로 서울지방항공청은 5개월여 남은 개항까지 매월 2회이상(그 중 1회는 청장이 직접 주재) 이와 같은 공항개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하여 무안 공항개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안전본부 상반기 혁신연찬회 개최

항공안전본부는 '신뢰받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직원 체험형 연찬회를 항공안전본부·소속기관 직원 70명이 참가하여 '07년 6월 20일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는 개인의 창의성 향상, 청렴문화 정착 및 Teamwork Building을 위한 직원 체험형 연찬회로 개최될 예정이며, 내실 있는 연찬회를 위해 전문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 시행할 예정이다.

연찬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초청강사 특강, Teamwork Building을 위한 공동체 훈련을 실시하고 청렴문화·업무효율성·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관한 3개 주제를 선정하여 각 2개조별로 분임을 편성하여 분임토의 및 결과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 ① 부조리사태 근절을 위한 부적절한 관행 발굴 및 해소 방안(1·2조)
- ②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 줄이기, 목은 관행 개선 방안(3·4조)
- ③ 기분좋은 직장 구현(GWP)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도입 방안(5·6조)



인천공항 새 활주로 내년 7월 열린다

내년 7월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새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활주로나 탑승동 등을 확충하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이 예상보다 순조로워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친 뒤 7월 초에 오픈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내년 8월까지 완공한 뒤 9월에 문을 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베이징올림픽이 8월에 열리는 점을 감안,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조기 완공을 택했다.

5월말 현재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은 75%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운전을 통해 안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90만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 전체 시설은 1단계를 포함해 645만평으로 늘어나고 활주로는 4천m짜리 1개가 추가돼 총 3개가 된다. 공항 처리능력도 확충돼 운항횟수가 연간 17만회 늘어난 41만회, 여객은 1천400만명 증가한 4천400만명이 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공역을 추가로 확보해 항공기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2009년까지 인천대교와 공항철도 2단계 구간 등 연계 교통시설도 완비할 예정이다.

자체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해 인천공항 주변에 국제업무, 레저, 컨벤션 기능을 가진 다기능 복합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개장한 물류단지까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을 대비해 2010년까지 30만평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강영일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장은 "내년 베이징 올림픽은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인천공항 2단계 조기 완공으로 시설이 크게 늘어나 많은 여객과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항공교통센터 수유시설 설치 추진

항 공교통센터는 직장생활과 함께 계속적인 모유수유를 원하는 여성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속에서 모유채유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에 수유시설 설치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수유시설 설치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유수유를 원하는 여성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독립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당당하게 유축 할 수 있도록 하여 모유수유율 향상과 더불어 더욱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수유시설 마련은 임산부 또는 출산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의 일환이므로,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적인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월중 업무추진실적 자체평가 실시

항 공교통센터(공역과)는 업무추진사항을 정기 점검하고 부진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지난 2월부터 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 5월중에 수행된 23개 단위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단위업무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습동아리(하늘사랑) 운영과 관련하여 상반기 성과 사례집 발간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5월 23일에 추가 혁신마일리지 100점을 획득한바 있다.

제5차 행정학습연구회 모임개최

항 공교통센터(관리과)는 업무기획 및 집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법령 등의 연구 및 토론하고 실무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연구함과 아울러, 센터 업무추진과정에서의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5차 행정학습연구회(ATCGG) 모임이 지난 6월 14일

항공교통센터 청사 3층 어학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박홍찬 주무관이 “항행안전시설 및 항로관제시설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발표하였으며, 김승남 주무관이 ”항로관제시설(비행자료처리기)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시 위기 대처를 위한 전산처리 예비시스템 확보방안에 대한 처리과정“을 발표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학습연구회(ATCGG) 커뮤니티 자료실에 등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ello English

이 코너는 ICAO 항공영어구술능력 시험에 대비하고 영어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사오니 보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공영어 구술능력 시험 대비 요령(4)

Task 6. Responding to a Communication problem

- ◆ 상황설정 지문을 잘 읽고 자신의 역할과 상황을 기억한다.
- ◆ 문제를 자세히 듣고 주어진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 이 TASK 는 내 메시지를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이 가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내용의 말을 다시 고쳐 다르게 표현하여야 한다.
- ◆ 말을 고쳐 표현하는 연습(rephrase)을 꾸준히 한다.

① 예제문 ①

◆ Task 6. Responding to a Communication

Directions: Listen to the following situation. Afterward, you will need to respond to a communication, then rephrase and clarify your response. You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the

first communication. In the second communication, you have 45 seconds to clarify your response. No time will be given to prepare your response. Now, listen.

Imagine that you are the Tower controller of an airport. In the landing sequence, King Air502 is number one followed by Fokker 613. Upon touchdown on Runway 12L, King Air 502 has landing gear failure and remains on the runway. You intend to instruct Fokker613 to either make a sidestep on Runway 12R or to execute a missed approach. Fokker613 now comes in

(Audio Only)

Imagine that you are the Tower Controller of an airport. In the landing sequence, King Air 502 is number one followed by Fokker613. Upon touchdown on Runway 12L, King Air 502 has landing gear failure and remains on the runway. You intend to instruct Fokker613 to either make a side step on Runway 12R or to execute a missed approach. Fokker613 now comes in:

Pilot : Tower, Fokker613 passing the inner marker.

Controller: _____ (15')

Fokker six one three, leading aircraft still on the runway, sidestep to Runway one two right or execute a missed approach.

Pilot: Tower, please say again: what's the problem?

Controller: _____ (45')

Fokker six one three, King Air five zero two, the leading aircraft still on Runway one two left due to landing gear failure, make a sidestep to Runway one two right or execute a missed approach at your discretion.



혁신으로 가는길

마을간이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 통신비는 부담없이, 맑은 물은 끊임없이 -

전남 담양군

첨 단 센서와 인터넷 통신망으로 보다 신속하고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시작된다. 바로 혁신명품'마을 간이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이 그것이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단수(斷水)가 되었다.

단수가 된 지 2시간이 지나 면사무소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을 둘러본 담당자는 물이 끊긴지 3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을 보고했고, 14시간이 지나서야 설계와 발주 과정을 거쳐서 보수에 들어갔다.

단수의 원인은 간이상수도 고장이었다. 결국, 단수 19시간 쯤 보수공사가 끝났고, 물이 다시 채워지는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만 하루가 지나서야 주민들은 물을 만날 수 있었다. 자연 부락에서 일단 단수가 되면 귀하디 귀하신'물'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올 스톱(all stop)이 되어버리기 일쑤다.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에서는 단수를 미리 예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수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하물며 자연부락 주민들은 단수 예고는 물론이거니와 신속한 해결 또한 어렵다. 마을 간이 상수도 통합 시스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다.

특히 지금까지 상수도 시설이 고장이나 급수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행정서비스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수도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이 바로'마을 간이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지난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총사업비 3억 9,000만원(시스템 설치 1억 5,000만원, 차량구입 및 인건비 4,000만원,

시설보수 2억원)으로 담양군 대덕면 14개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량, 수위, 약품잔량, 수중 모터 가동 상태 측정 등 센서 설치
2. 마을 상수도 관리자(이장) 가정에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 가능한 경보기 설치
3. 경보(개별입력장치) 및 중앙본체 메인시설 설치
4.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용 인터넷망 구축
5. 배수지 및 관로 등 부설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인원 확보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저수조 자동 제어시스템'은 송신부의 물탱크와 제어부 장옥(지하수)의 수위, 약품잔량이 마을 관리자에 통보되면 군내 상하수도 사업소에 기존전화선을 이용하여 무료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담양군의 혁신명품 '고객지향형 마을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의 성과까지 거두었다.

혁신명품'마을 간이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관할

군에서는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닌가.

이러한 혁신명품을 진정한 혁신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담양군은 구체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먼저 특허 출원이다. '마을 간이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저수조 자동 제어시스템'을 담양군과 사업 시행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해 특허(제10-0689108호)를 따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에 홍보하고 벤치마킹을 유도하는 것이다. 한국 상하수도협회 Water Korea 전시회에 참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담양군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마을 간이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홍보했다. 그 결과 현재 보성군, 장성군, 괴산군, 강진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저수조 자동 제어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다.



독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항공교통센터에서는 혁신분위기 확산, 혁신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창의적인 혁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혁신 NEWS PAPER』를 발간·배포하고 있사오니, 각 기관 또는 개인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활동을 게재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혁신NEWS PAPER 발간 및 배포안내

- 발 간 : 주 1회(매주 화요일)
- 배 포 : CTNET, 우리센터 게시판, 구독자 전자우편 등
- 편집부 : 항공교통센터 공역과 (편집장 : 장재수)
- 전 화 : 032-880-0224 팩스 : 032-889-2376 E-mail : atcchang@moct.go.kr

※ 본지의 내용은 우리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